

大學院教育에 있어서의 Shakespeare史劇

全 濟 玉

(英文科 教授)

緒

지난 20여년간 隔年 또는 三年에 걸쳐 大學院에서 Shakespeare를 講義할 때 史劇 10篇을 每學期에 完讀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오기 未盡함을 느끼게 되었다.

우선 史劇의 genre나 definition을 正確히 알려야 되며 史劇과 悲劇의 差異點은 무엇인가도 區別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確實하지 못한 것과 Shakespeare의 史劇을 읽기 전에 pre-requisite으로 읽어 두어야 할 史劇이 얼마나 되며 特히 Shakespeare가 史劇을 執筆하기 以前에 既刊으로 된 史劇과 Shakespeare가 參考했을 서적 등을 미리 읽어두는 것은 絶실히 必要하며 史劇을 理解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Shakespeare가 年代記順으로 史劇을 執筆하지 않았기 때문에 史劇을 어느 것부터 읽는 것이 理解와 分析에 便利할 것인가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평소에 느낀 點과 아울러 10篇의 史劇에서 가장 essential한 部分과 作家의 意圖와 構想을 紹介함으로써 Shakespeare 史劇을 研究·理解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 論文을 쓰고자 하는 바이다.

I. 史劇의 genre와 definition

史劇은 簡單하게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規定짓기가 어려우며 때로는 悲劇과 별 差異없이 쓰이기도 하였다.

Samuel Johnson은 그의 유명한 *Preface*[1765](*To Johnson's edition of the Plays of William Shakespeare*, 1765)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History was a series of actions, with no other than chronological succession, independent on each other, and without any tendency to introduce or regulate the conclusion. It is not always very nicely distinguished from tragedy. There is not much nearer approach to unity of action in the tragedy of *Antony and Cleopatra* than in the history of *Richard the Second*. But a history might be continued through many plays: as it had no plan, it had no limits.

한편 그는 tragedy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ragedy was not in those times a poem of more general dignity or elevation than comedy: it required only a calamitous conclusion, with which the common criticism of the age was satisfied, whatever lighter pleasure it afforded in its progress.

史劇과 悲劇의 區別이 確實하지 못하고 悲劇과 喜劇의 差異 또한 顯著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Hamlet 2막 2장에서 Polonius가 말하는 劇의 genre는 實로 多樣하다.

The best actions in the world, either for tragedy, comedy, history, pastoral-comical, historical-pastoral, tragical-historical, tragical-comical-historical-pastoral: scene indiviuable, or poem unlimited.

以上과 같은 genre가 있었다면 History는 tragedy뿐만 아니라 comedy 또는 pastoral과도 連關되어 History만을 따로 떼어 놓기는 매우 困難하다. 더우기 chronicle play와도 混同되어 First Folio에는 The Chronicle history of Henry the Fifth 또는 The True Chronicle-Historie of the Life and Death of King Lear and his Three Daughters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King Richard II*와 *King Richard III*도 The True Tragedie of Richard Duke of Yorke, The Tragedie of King Richard the Second,와 The Tragedy of King Richard the Third로 되어 있다. 當時에는 史劇과 悲劇의 區別은 別로 없었고 悲劇의 sources도 史劇의 것에서 택한 것이 大部分이었다. 따라서 分明한 限界를 둔 定義를 말하기는 困難하였다.

S.T. Coleridge는 史劇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In order that a drama may be properly historical,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the history of the people to whom it is addressed.

It takes, therefore, that part of real history which is least known, and infuses a principle of life and organization into the marked facts, and makes them all the framework of an animated whole.

그러나 이 定義에도 적지않은 矛盾點이 있으니 Elizabeth時代 사람들에게 30年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Wars of the Roses가 과연 알려지지 않은 史劇이었을까? Coleridge는 自己의 定義가 不完全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다시 Henry四世 같은 史劇은 mixed drama라고 부르코 史實에 關한 한 *Macbeth*가 *Richard II*와 別로 差異가 없으며 純粹한 史實이 plot을 構成하고 mixed drama에서는 史實이 plot을 指揮하며 그밖에 *Macbeth*, *Hamlet*, *Cymbelnie*, *Lear* 등에서는 史實이 plot에게 종속된다고 規定한다.

그러니까 史劇은 착실한 愛國心, 自由을 憧憬하는 마음과 國民을 結束시키는 社會生活의 모든 基礎的인 制度를 爲하여 쓰여진 것이다. 특히 Shakespeare가 史劇을 執筆할 當時만 하여도 英國을 위협하였던 the Spanish Armada를 1588년에 완전히 격침시켜 英國이 위기를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위가 海外에까지 뻗쳐 英國民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되고 愛國

심이 매우 昂揚된 時期라서 英國이 지난날 걸어온 歷史를 一般國民들에게 더욱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劇作家의 의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英國의 歷史도 영광된 祖國의 과거라면 Henry V나 Henry VIII의 時代를 제외하고는 政情이 어지럽고 王位가 篡奪되고 급기야는 弑害되거나 내란의 연속으로 王의 心情이 편할 날이 없었고 人間以下의 잔악한 性情을 가진 잔인 무도한 짓을 자행하거나 또는 요람 속에서 명목상으로 帝王이 되어 先王이 획득한 영토를 모두 상실하고 國內에까지 유혈극이 설 새 없었던 社會不安定과 모든 國民들의 日常生活까지도 위태로웠고 30年동안 계속되었던 당파싸움인 장미전쟁을 作家가 史劇의 主題로 삼은 것은 英國의 偉大함을 과시하고 더욱 鞏固하게 結束시키는 데 主眼目을 둔 것 같다. 悲劇이 가장 높은 地位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知覺하지 못하는 과오로 急轉直下로 敗亡하는 것을 다루었다면 英國史劇의 主人公은 英國의 王이나 重臣이 그 자리를 本意아니게 물러나거나 사멸된다 하더라도 主人公만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史劇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政治劇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무릇 광범위하여 정치국면 뿐 아니라 哲學, 宗教, 社會 등 當時 一般國民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實生活의 一部分을 生生하게 무대에 再現시킨 것이다. 悲劇이 人間生活의 倫理面에 치중하였다면 史劇은 정치적 異變을 다루었다. 英國이 겪어 내려온 興망성쇠와 어느 왕조의 榮枯浮沈을 國家라는 求心點에서 관찰한 것이다.

史劇의 定義나 genre를 손쉽게 規定하기는 도저히 곤란한 것이며 史劇이 지니는 目的方法 등은 다른 歷史的 作品들과 겨누어 가며 관찰할 것이 필요하며 특히 Shakespeare 史劇 10篇을 읽고 나면 각자가 느낄 수 있는 史劇에 관한 觀念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자기 意見의 差는 있겠으나 막연한 定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접경이 되리라고 믿는다.

II. 史劇 執筆에 영향을 끼친 서적

Shakespeare가 史劇을 執筆하기 以前에 간행된 서적중에서 Shakespeare가 一讀하였거나 參考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서적은 매우 많으나 그것을 모두 열거하기는 매우 힘들며 다만 史劇 한편 뿐 아니라 여러편에 걸쳐 참조한 흔적과 증거가 있거나 다른 作家의 作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作品을 골라서 소개하려 한다. Shakespeare史劇은 읽기 전에 이러한 作品을 미리 읽어두면 그 時代의 背景과 윤곽을 잡을 수 있어 本文中에 나타나는 史實과 作家가 번안 각색한 部門을 알아 낼 수 있어 그 作品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史劇 전반에 걸친 批評을 할 수 있다.

Raphael Holinshed: 1580年경 死去. Shakespeare가 史劇을 쓰기 전에 Edward Halle의 作品과 함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作品으로 그의 The first Volume of the Chronicles of England, Scotlande and Irelande ... Conteyning the description and Chronicles of England

from the first inhabiting into the conquest...은 1577년에 출판되었으나 Shakespeare가 참조한 것은 1587년 刊行인 제 2 판이다.

Shakespeare는 史劇에서뿐 아니라 *King Lear*, *Cymbeline*등에서도 Holinshed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 또한 Plutarch의 유명한 *Parallel Lives*는 1559년에 Jaques Amgot에 의하여 佛譯되었고 다시 Thomas Nashe에 의하여 1579년에 英譯된 것인데 이 冊도 Holinshed의 *The Chronicle*와 함께 Shakespeare史劇의 source book으로 使用되었다.

Edward Halle (C. 1498~1547) Henry VIII時代의 史學家: The Union of the Two Noble and Illustre Famelies of Lancaster and York은 Halle이 1530년에 시작하여 그의 死後인 1548년에 Richard Grofton에 의하여 完成된 作品으로 自家撞着되는 表現이 적지않아 當時 史實의 기록으로 간주되었다.

Polydone Virgil이 1534년에 出刊한 *Anglicae Historiae Libri XXVI*에 고무되어 Halle이 Henry IV 이후 英國史를 執筆하게 되었는데 그가 官吏로 봉사하던 1532년까지에 이르는 Henry VIII재위중에 발생한 사건이 더욱 흥미롭다. Raphael Holinshed의 英國篇 chronicle에서도 많이 引用되었다. Shakespeare 初期 史劇에서는 Halle의 作品이 Holinshed보다 더욱 중요한 source로 사용되었다.

Thomas Nashe(1567~? 1601) University Wits의 한 사람으로 Cambridge大學 출신이다. 1592년에 pamphlet로 Pierce Penniless his Supplication to the Divell을 출간하여 대중무대에 관한 그의 비난을 재연시켰다. 이 작품은 Henry VI의 著作年代를 알아내는 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Thomas More (1478~1535): Cardinal Wolsey 다음으로 1529년에서 34년까지 Lord chancellor of England를 지닌 사람으로 경건하고 學問과 機智가 뛰어나 當代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나 Henry VIII가 英國의 宗教上으로도 最高位에 남겠다는 것을 거절하자 다음 해에 반역죄로 斷頭되었다. *Utopia*(1516)와 더불어 *The History of King Richard III*의 저서로 널리 알려졌다.

The Book of Martyrs (1563)는 John Foxe가 *Actes and Monuments*라는 原題로 1516~87 사이에 출판한 서적에 부친 別號이다.

Queen Mary 治下에서는 추방되었다가 1559년에 英國으로 귀환하였다. 本題는 Latin語로 쓰여졌으나 Foxe가 1563년에 英譯本을 내서 모든 教會와 가정에도 상비하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은 Henry VIII中에 Cranmer에 對한 謀略을 說明하는 장면과 Henry VI—Part II의 Simpcox의 虛偽奇蹟 등이 참조되고 있다.

The New Chronicles of England and France(1516)는 Robert Fabyan이 평소 日記體로 적어 놓은 것을 그의 死後에 Sir Henry Ellis가 出刊한 것이다. Shakespeare도 이 冊에서 Henry VI 3部作과 Henry V에서 다소 참조한 것이다.

A Mirror for Magistrates: John Lydgate의 *Falle of Princess* (1431~38)의 再版으로 시작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원래 Boccaccio의 *De Casibus Virorum Illustrium*에서 파생된 것이다. William Baldwin이 편집한 英國의 悲劇의 主人公들의 전기가 부록으로 수장되어 있다.

Shakespeare는 이 作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特히 King Henry VI의 실제 살해를 Richard of Gloncester로 한 것과 *Richard II*, *Henry IV*, *Henry VI*등에도 여러가지 暗示가 주어지고 있다.

Gorbuduc (1561): Thomas Norton (1532~84)과 Thomas Sackville (1536~1608)의 作品으로 이 悲劇은 Seneca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無韻詩로 쓰여진 최초의 英國 悲劇으로 英語로 쓰여진 Seneca style의 悲劇의 標本을 이루고 있다.

Il principe (The Prince, 1513). 이태리 作家이며 政治哲學者인 Niccolo'Machiavelli(1469~1527)가 추방중에 執筆한 作品이다. 그의 政治哲學은 根源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문예 부흥기의 人道主義의 一面을 나타낸다. Shakespeare의 惡人像인 Iago와 Richard III의 心性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Henry VI*의 Part III와 *Henry VI—Part I*에도 그의 흔적이 나타나 있다.

Christopher Marlowe(1564~1593): Shakespeare와 同年代 作家로 그가 만약 夭折하지 않았다면 Shakespeare보다도 더 유명하였을지도 모른다고 評할 정도였다. 特히 그의 *Tamburlaine the Great, Parts I and II* (C. 1587), *The Famous Tragedy of Rich Jew of Malta* (1589), *Edward II* (C. 1592) 등은 Shakespeare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Titus Andronicus*와 *The Jew of Malta*, *Richard III*와 *The Massacre at Paris* 등은 어느 作品이 먼저이며 또한 單一作家의 것인지 Marlowe와 合作인지를 명확하게 區別하기 힘들 정도이다.

The Chroniques (Lord Berriens English Translation of Froissart (2 vols, 1523~15) 佛人 史學者이며 詩人인 Jean Froissart가 1351년에 Edward III의 왕후 Queen Philippa 治下의 英國을 널리 돌아보고 쓴 저서로 Lord Berrner가 英譯한 것이 Shakespeare의 *Richard II*의 여러 곳에 引用되고 있다.

Woodslock: 作家와 年代未詳의 作品으로 *Richard II* 初期의 것과 같다. *Richard II*에 나오는 John of Gaunt 의 性格이 이 劇의 主人公 Woodslock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나 이 作品이 과연 Shakespeare의 *Richard II*보다 앞선 作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學者間에 논란이 많다.

The Famous Victories of Henry V (1594): 作者未詳의 劇으로 Henry IV와 Henry V의 source로 약간 사용되었다. Seymore Pitcher은 이 作品이 Shakespeare가 접했을 때에 習作으로 1586년에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homas Phaer (C. 1510~60) *A Mirror for Magistrates*의 一部分인 Owen Glendower의

저서로 이 작품을 Shakespeare가 *Henry IV—Part I*의 Glendower 묘사에 참고하였을 것이다.

Soliman and Perseda (C. 1589~92) 작자미상이나 1592年 11月 10日로 등록되었다. Falstaff의 “Catechism on honour”와 유사한 연설을 과장하는 騎士인 Basilisco의 것도 포함되고 있다. *King John*에 나오는 Basilisco에도 비유가 된다.

Sir Thomas Eloyt (C. 1490~1547) *The Boke of the Governour* (1531)는 3권으로 된 것이며 國家는 강력한 단일 지도자에 依해서 支配되어야만 한다는 理倫이다. Shakespeare는 *The Two Gentlemen of Verona*에서 男性友情의 概念을 쓰는 데 이 作品에 많이 힘입고 있다.

Sir Roger Williams (C. 1540~1595) 본시 군인으로 역전용사이었다가 the eave of Essex에게 사사하고 숭배하였다. *Henry V*에 나오는 용감한 Welshman, Fluellen은 Shakespeare가 Sir Rager를 同質的으로 묘사한 것이다.

The Troublesome Raigne of John, King of England (1591)는 E.A.J. Horignior에 의하면 作家未詳인 作品이 아니라 Shakespeare의 作品인데 bad quarto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두 作品은 King John의 후세(1199~1216)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도 같다. 또한 1215년에 있었던 Magna Carta의 署名에는 두 作品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The Troublesome Raigne*는 맹렬한 anti-Catholic劇인 데 비하여 Shakespeare의 것은 많은 사건과 episode를 생략하고 있다. 두 作品을 비교 연구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When you see me, you know me (1605): 배우이고 劇作家인 Samuel Rowly가 쓴 史劇으로 그가 처음에는 Admiral's Men으로 있다가 Elector Palatine으로 후원자를 옮겼을 때 저술한 것으로 *Henry VIII*의 source book中的 하나로 되어 있다.

Thomas Howard Norfolk (1443~1524) Richard III를 지지하였다가 Henry VII에 依하여 투옥되었으나 다시 Henry VIII의 chief advisor가 되고 1514년에는 Duke로 授爵되었다. Henry VIII에서 Cardinal Wolsey를 실각시키는 데 공헌하고 Anne의 대관식과 Princess Elizabeth의 세례도 참석하다.

III. 史劇 10篇에 對한 短評

(1) *Henry VI—Part I*

*Henry VI*의 Part I, II, III 를 읽고 느끼는 바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王이 生後 不過 9個月

만에 요람 속에서 王位를 계승하였으니 王의 친척이나 重臣들이 활약할 따름 王은 명목상으로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3cit. Woe to the land that's govern'd by a child!

2cit. In him there is a hope of government, That is in his nonage, council under him, And in his full and ripened years himself, No doubt, Shall them and till they govern well.

1cit. So stood the state when Henry the sixth was crowned in Paris but at nine months old.

(Richard III: II, 3, 9-16)

上記한 對話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幼王을 모시고 그 나라가 國泰民安하기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York와 Lancaster兩家에서 시작되어 30년 계속된 장미전쟁이 발발한 것도 이때이고 밖으로는 先王 Henry 5세가 큰 치적으로 세워 놓은 英佛兩國의 王位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Henry 5世가 王位에 오르기 전에는 Sir John Falstaff와 작당하여 갖은 못된 짓만 골라하며 Henry IV의 心機를 어지럽히다 마침내 뜻하는 바 있어 새로운 각오로 만 사람이 되어 王位에 오르게 되니 前科나 前罪는 잊어지고 賢君名王으로 높이 받들게 되고 乘勝長驅하여 마침내 佛國全土를 영유하게 되니 英國史上 가장 빛나는 國王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限命이 너무 짧아 35세의 壯年도 채우지 못하고 他界하게 되니 Henry 6세로는 守成기 곤란한 처지였으며 이 난국에서 國內에서는 Gloucester와 Beaufort가 서로 反目이 격심해지고 불란서에서는 Joan La Pucelle이 해괴한 괴녀인지 마녀인지 알 수 없는 怪女를 앞장 세워 佛軍의 抗英失地 回復 作戰이 Charles王 治下에서 일어났다.

Shakespeare가 Joan La Pucelle를 괴녀 또는 마녀로 취급한 것은 史實을 너무 歪曲시켰다 하여 Anatole France의 *Life of Joan of Arc*(1908)과 1923년에 G.B. Shaw가 쓴 *Saint Joan* 등은 觀點과 시대의 差異가 현저하다. 그러나 Shakespeare의 作品에는 조금도 비난할 바가 없는 것은 그 당시의 英國 國民 感情이나 愛國衷情으로 보아 Joan of Arc을 神聖視하는 것은 作家로서뿐 아니라 英國國民으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劇의 sources로는 Raphael Holinshed의 *Chronicle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의 第2版(1586~7年)과 Edward Halle의 *The Union of the two nobles and Illustrious Families of Lancaster and York* (1547)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26세인 Shakespeare는 Roman Comedy를 모방하여 *Comedy of Errors* 또는 수년 후에 Senecan Tragedy를 본따서 *Titus Andronicus*를 집필하여 讀者로 하여금 作家의 初期의 未熟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Henry VI*에서도 이런 점이 적지 않게 엿보이는데 특히 그가 즐겨 쓰는 修辭學的 表現이나 古事의 引用같은 것은 劇의 進行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 분명히 관심과 흥미를 끌었을 것이다. 初期作인이 史劇을 통해 作家가 이미 확대한 scale과 많은 등장인물을 잘 처리한 筆致는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作家가 史劇의 첫 시도로 Henry VI를 택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때 나오는 戰役이 作家의 出生地인 Stratford-upon-Avon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發生하였으니 洞里老人들 중에서 幼年時 Richard III 治政下에 살아 온 사람들이 있어 이야기 거리가 되어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고 바로 수년 전에 Spain의 無敵艦隊를 격멸시켜서 英國民들은 새로운 긍지를 갖게 되고 따라서 많은 호기심으로 내 나라의 過去를 알고 싶은 心理가 왕성하였고 마침 Edward Halle이 1547년에 Wars of the Roses를 소상히 기록한 책을 저술하였으므로 Shakespeare도 그의 취지를 따라 英國 國民의 愛國心을 고무하고 산란스러웠던 과거의 神의 도움 또는 天意에 依하여 잘 마무리 짓게 될 것을 무대를 통해서 國民들이 알아두어야 할 教訓 또는 경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2) Henry VI—Part II

Part I이 有能하고 愛國的인 將軍 Talbot의 생애를 묘사하고 Part II에서는 영국 내란인 Wars of the Roses로 시작하여 St. Albaus에서 Yorkist의 승리를 다루고 있다. 그 시기는 1445년부터 10年間이니까 Henry VI도 24세에서 34세에 이르는 동안이다. 년령으로 보면 自治할 수 있었으나 性格上의 문제가 있다. 감상적이며 冥적으로 否定的이어서 善王이 될 수 없는 쓸모 없는 同情心에만 차 있었다. 또한 聖人君者型으로 숙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러한 性格의 결함을 간파한 Sufflock은 Talbot가 사멸한 후에 國權을 장악하기 위해서 不純하고 교활한 美人計 같은 수법으로 Margaret와 結婚시키니 이로부터 야기되는 國內외의 소란스런 문제가 그칠 사이 없었다. Gloucester와 Beaufort간의 不和, 反目は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 사이에 Gloucester의 夫人 Elenor까지 나서 남편을 제치고 나서니 Margaret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다. 내란이 그칠 사이 없는 동안 불란서 영토는 매일 상실되어 가는데도 王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教會를 國家에 종속시킬 수 없게 되니 Beaufort가 宗教人을 벗어나 권력을 휘둘러 보려는 아욕에 집착하게 된다. 사회 질서가 파괴됨에 따라 하극상 현상이 노출되며 그 例로는 부하인 Peter가 上典 Hornet을 살해한다. 평민 Jack Cade가 York에게 조종되어 왕권에까지 도전하는데도 王은 속수무책으로 있다. 農民—揆로 無識者가 識者에게 반항하여 既存秩序를 水泡化시키는 상태였으나 作家는 이런 상황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한편 이에 앞서 Eleanor에게는 마법사, 自稱豫言者들이 몰려와 허망한 예언과 부실한 낭설이 세상에 떠돈다. 史劇의 plot과는 직접 연관이 지 않았으나 劇의 背景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회질서의 붕괴는 당시의 觀衆에게 적지 않은 흥분과 공포를 일으켰을 것이다.

作家는 이 史劇에서 감상적이며 애조를 띤 王의 性格과 반대로 勝於夫하는 맹렬한 여걸과 그를 둘러싼 모사용사들의 묘사에서 원숙한 필치를 보이고 있으며, 王으로 군림할 수 있는 모든 資質을 갖춘 Gloucester와 王權을 손에 넣으려는 교활하고 파렴치한 York, 그 중

에서도 York의 第二者로 추후에 Richard III가 될 人面獸心の 兇惡漢이 Castle Inn에서 Somerset를 살해함으로써 王位는 Lancaster에서 York卿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 틈에 끼어 Henry VI는 형편없이 명목상으로만 王位를 지키고 있을 따름이다.

Structure로 볼 때 *Henry VI*의 Part I, II, III과 *Richard III*가 tetralogy를 이루는 것 보다는 *Henry VI*의 Part II, III과 *Richard III*가 Trilogy로 보는 것이 理解하기 쉽고 作家가 意圖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3) *Henry VI—Part III*

Henry VI는 두번에 이르는 在位期間을 합치면 약 40년이나 되는데 그는 불행히도 스스로 판단력이 없었고 수시로 정신분열증까지 일으키므로 自主的인 統治는 한번도 해본 일이 없고 勢力의 변천을 알 수도 없어 폐위도 두 차례, 매장까지도 두번에 이르는 英國 歷史上 가장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일은 Henry VI 자신의 불행만이 아니라 祖父인 Henry IV가 Richard II로부터 王位를 篡奪하고 그를 弑害하였으므로 그 餘罪 때문에 後孫이 받아야 할 罰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無能無爲한 사람이 王位에 오랫동안 앉아만 있고보니 國力이 衰退해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亂世相을 보여 父子相殺하는 悖倫的 行爲가 社會를 휩쓸게 된다. 비겁하고 無氣力한 王을 제치고 Margaret이 軍事를 일으켜 Wakefield近方에서 膳物을 거두어 York의 둘째 아들 Edmund를 殺害하고 York Clifford에 依하여 刺殺되나 이미 York는 實質的 권력을 Edward가 Richard에게 물려준 다음이었다. Edward가 Edward IV로 登位하니 Richard의 독무대가 되다시피하여 그의 본래 타고난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실상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Henry VI*의 Part III는 *Richard III*의 序曲이나 序章의 役割을 한다.

性格上으로 보면 Henry VI는 Richard II와 흡사한 점이 있다. Richard II가 政事 보다는 서투른 詩作에 더욱 마음이 쏠리고 있었으나 王位만은 王權神授說만 믿고 어느 누구도 감히 반역하거나 篡奪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듯이 Henry VI도 어지러운 York家와 Lancaster家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內亂을 수습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亂世를 피해서 村夫로 온둔생활이나 하였으면 하고 마음 속으로 바라고 있으니 國事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의 權座를 向한 추악한 相爭은 어느 모로든 李朝時代 端宗과 世祖 사이에 벌어졌던 王位爭奪相과도 비슷하다.

*Henry VI*의 Part III를 읽고 나서는 다음에 나오는 *Richard III*를 읽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도 作家의 非凡한 묘사와 筆致가 讀者나 觀衆을 魅了시킨 탓이다.

(4) *Richard III*

作家는 이미 *Henry VI*의 Part II와 Part III에서 Duke of Gloucester가 앞으로 날뛰게 될

場面를 豫言하였다. 그에게 독무대가 提供되고 더욱 放恣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 그의 잔인하고 오만한 行動은 人力으로는 저지시킬 수 없게 된다. 作家는 이에 Senecan Tragedy와 Marlowe의 *Tamburlaine*의 手法을 많이 따랐다. 철지한 악인상은 무엇인가를 아낌없이 表現한다.

1785년에 Thomas Whatly가 쓴 *Rewarkson Some of the Characters of Shakespeare*중에서 Macbeth와 Richard III를 비교해 놓은 논문은 Richard III를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Macbeth나 Richard III는 다같이 將軍으로 王을 弑害하고 王位를 篡奪한 點은 비슷하나, Macbeth는 本意 보다는 Lady Macbeth의 強要에 依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후회하고 改過하는 빛이 보이는 데 반해, Richard III는 스스로 만들어 人間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약한 것만 하고도 조금도 뉘우침을 모른다. 적이 되는 사람은 모조리 없애고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이 스스로가 一家를 함몰시킨 Henry VI의 子婦인 Lady Anne이 그의 亡夫의 장례행렬이 이끌어지는데 그에게 갖은 치욕을 들어가며 求愛, 求婚하는 것은 금수와 다를바가 없다. M.M. Reese가 말한대로 Richard III는 Shakespeare가 묘사한 가운데 “first great comic character”인지도 모른다. 無限定하게 악인이 犯人을 恣行하여 이 세상을 멸망의 破局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듯하였으나 天意와 神命이 攬정하게 된다. 30年間이나 계속되던 장미쟁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어 Buckingham도 이탈하고 보니 Richmond가 우세하게 된다. 이 때 Richard III에 依하여 희생된 亡靈들이 나타나 Richard에게는 하나같이 저주하고 한편 Richmond에게는 吉執를 진하니 이미 大勢는 스스로 판가름이 난 것이다.

作家의 意圖나 그 時對의 觀衆들이 바라는 것도 이와 같은 흥악법의 末路는 事必正으로 그치며 Richmond가 Elizabeth와 結合됨으로써 Wars of the Roses를 마무리짓게 된 셈이다. 政治學에서 말하는 cycle說도 理解할 만하다. 이러한 일은 15세기에 英國에서 發生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現今에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文明이 發達되고 人智가 높아지고 人權이 云云되고 있으나 舊態依然한 政治作態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5) *King John*

1594~97年 경에 著作한 *Midsummer Night's Dream, Romeo and Juliet*, 史劇으로는 *King John*과 *King Richard II*가 있는데 이 四篇은 genre에 있어 너무 差異點이 많아 과연 作家가 이 期間에 著述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作家는 그 以前에 이미 첫번째 4部作을 출판하여 순서대로 한다면 Henry VII차레이나 在位中인 Elizabeth I의 直系先祖이고 또한 政策上으로도 難題가 많아서 선불리 劇化하다가는 作家自身에게도 加해질지 모른다는 疑念 때문에 避한 듯하다.

이 劇의 source로는 작자 미상의 *The Troublesome Reigne of John, King of England* (1591년 간행)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못하다. 다만 *The Troublesome Reigne*이나

*King John*에서 다같이 Magna Carta를 생략한 것은 共通點이다.

*The Troublesome Reigne*이 맹렬한 反 Catholic劇인데 作家는 이러한 事件과 이야기는 제거하였다. 따라서 King John은 action 自體를 理解하는 데도 齣점이 분명하지 못하다.

King John은 王位承繼上 問題點이 있어 그의 侄인 Arthur가 正統後繼者였으므로 처음부터 論爭의 씨앗을 안고 있었고 이것을 利用하여 佛國에서도 王位の 繼承 問題로 King John을 위협하게 되니 John도 그 후에는 法王에게 굴복하게 된다.

Bastard Falconbridge와 Hubert de Burgh는 作家가 創作한 거대한 人物로 批評家에 따라서는 *Henry IV*에 나오는 Sir John Falstaff와 *King John*의 Falconbridge를 各己 主人公으로까지 다루는 사람이 있다.

Bastard의 “Truth and Commodity” Act II 마지막 場面이 史實로 가장 중요시되는 Magna Carta를 劇에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rthur의 모친 Elinor와 King John의 모후 Constance, 이 두 女人을 Coriolanus의 모친 Volumnia와 그의 부인 Virgilia와 비교하면 많은 相通點을 발견할 것이다. 宗教와 政治間의 충돌과 갈등으로 國政이 顯然해진다. 어느 편이 上位이며 支配的인가? 破門의 위협을 받게 되니 John도 결국에는 굴복하게 된다.

王位를 中心으로 한 John과 Falconbridge의 性格을 作家는 잘 묘사하고 前者는 반영자일 뿐 아니라 自己 理想이나 國家的인 觀點으로도 王이 될 수 없으며 한편 Bastard는 의당 英國을 支配할 수 있으며 知性은 없으나 能力은 가진 사람으로 英國人이 모두 崇仰하는 Henry V와 같은 性稟을 지닌 사람이다.

(6) *Richard II*

Venus and Adonis(1593)과 *The Rape of Lucrece*(1593)등 詩篇을 마친 다음이라 作家는 劇作家라기 보다 詩人으로 성숙하였을 때이므로 그의 원숙한 詩想을 *Richard II*의 詩才를 빌어 잘 나타내고 있다.

본래 *Richard II*는 *Richard III* 같이 포악한 性稟을 지닌 사람도 아니고 運命에 依하거나 또는 이질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被動的으로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性格上의 瑕疵 때문에 權座에서 물리날 뿐만 아니라 生命까지도 잃게 된다.

그는 文人墨客으로 詩作을 즐겨했으며 王으로서의 統治力은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그에게도 詩人답지 않은 一面도 있었으나 Ireland 遠征戰役費가 부족하게 되자 숙부인 John of Gaunt의 家財財產을 沒收하는 物慾貪心까지 나타내니 重臣들의 信任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王은 Duke of Gloucester을 죽이는 데 連累된 罪相이 있었고 國庫를 낭비하고 重課稅로 國民들을 生活苦에 몰아 넣은 罪過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Richard*가 철석같이 믿고 重臣

들, 특히 Bishop of Carlyle이 信念化하였던 王權神授說만 最後의 堡壘로 삼았다.

추방에서 돌아 온 從弟 Bolingbroke는 Duke of Lancaster라는 칭호와 탈취된 財産만 還收될 것을 表面으로 내세우고 은밀히 귀국하니 이미 Richard의 執權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死去說까지 퍼져 군대에서는 탈영병이 격증하니 Bolingbroke는 나날이 강력하여졌다.

과묵한 性格과 실천 行動력을 갖고 있는 Bolingbroke와 우둔하고 감상적이며 현실적 變化를 파악함이 없이 空想 허념에만 잠기게 되는 Richard와는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하게 된다. 作家는 Richard에게 많은 동정심을 갖고 執筆하였기 때문에 上記한 상황하에서 強制的인 政權移讓은 당시로는 있을 수 없었다. 추후 Henry IV로 등장하는 Bolingbroke에게는 씻을 수 없는 罪過가 남아 있으니 王位篡奪과 弑害를 모면할 도리가 없다.

끝에서 Bolingbroke가 改過遷善하러 聖地巡禮를 行하고자 하나 이것 역시 이루지 못한다.

作家가 Richard를 執筆하기 이전에 숙독한 것으로 사료되는 많은 중세기 作品들의 影響이 현저히 나타나 있다.

Gaunt의 대사(Ⅱ.I. 40-68)는 臨終에서 그가 평소지닌 愛國衷情을 잘 나타내고 Richard로 하여금 王道를 잘 지키라는 重臣다운 말이다.

全篇이 즉흥시로 흘러 있으며 Richard가 말한 [Ⅳ.I. 181-192]과 [Ⅲ.II. 143-170]의 哀調된 대화는 王으로서는 이미 멀어졌고 다만 화려했던 過去를 回想하면서 現在도 모르고 未來에는 더욱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作家는 天命, 神意의 代行者로 마련된 王位도 本人에 따라서는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반역자 篡奪者들도 오래 동안 쟁취한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教訓을 그당시 觀衆에게 보여주고 있다.

(7) *Henry IV—Part I*

God knows, my son,

By what by-paths and indirect crooked ways,
I met this crown: and I myself know well
How troublesome it sat upon my head: [Part II, IV, 5, 179-182]

용감하고 씩씩하여 軍人으로 行動龜鑑이었던 Bolingbroke도 Richard II로 부터 王位를 篡奪하고 弑害까지 저지른 다음 Henry로 登位한 뒤에 그의 腦裡에서 항시 Richard II의 亡靈의 兇兇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가 意圖하였던 聖地巡禮도 Nothumberland의 아들 Hotspur의 反亂으로 如意치 못하게 되고 그의 唯一한 소망인 Prince Hal도 하는 것이 틀려 王은 마음 속에서 自己가 저지른 罪科에 對한 天罰로 여기게 된다.

Sir John Falstaff는 作家가 創作한 偉大한 人物로 그가 만약 없었다면 Henry IV의 史劇은 빛을 잃었을 것이다. Falstaff는 太子 修道 過程에서 없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의 많은 影響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여러 面貌를 살살이 體驗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덕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Prince Hal는 일시 빙탕생활을 꿈을 듯도 하였으나 이러한 난잡한 생활속에도 그가 本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후에 그가 理想의인 王으로 登位할 수 있는 어려운 기틀을 이때 마련했었기 때문이다.

作家가 이 劇에서 나타난 筆致에는 人物의 性格 發展을 들 수 있다. Bolingbroke가 Henry IV로 된 다음의 우울하고 속죄하고 싶어하는 心理와 Prince Hal이 거친 生活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名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상대가 되었던 Hotspur과 Hal의 대조이다.

Hotspur는 軍人의 模範으로 전쟁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唯一한 大路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幻想의 迷路에 빠지기 쉬워 현실 파악을 잘못하였으나 한편 Hal은 蕩兒와 雜人들과 親交하는 中에도 本心을 잊음이 없이 自己가 行하는 일을 알고 지냈던 것이다.

Henry IV의 Part I과 Part II는 10막으로 된 한 史劇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이 作品의 집필 연대는 흔히 1597~98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Part I과 Part II 사이에 The Merry Wives of Windsor가 1597년 初에 集필된 것이라는 說도 있다.

(8) Henry IV—Part II

作家가 教會에서 들은 說教 “An Exhortation Concerning Good Order and Obedience to Rules and Magistrates”와 “Homily Against Disobedience and Wilfull Rebellion”등을 記憶하여 Henry IV를 集필하는 데 유념한 듯하여 이 史劇을 通하여 Elizabeth時代 사람들에게 愛國心을 鼓吹하기로 한 것이다.

Sir John Falstaff는 一種의 Interlude로 생각할 수 있다. 그는 Prince Hal이 虛浪放蕩한 소년 시절을 지내는 동안 여러가지 人間 生活의 숨겨져 있는 실상을 고루 體驗한 다음 登位할 때까지는 이 모든 불미로웠던 過去의 行적이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 賢君名王의 資質을 갖추게 된다. Falstaff는 중세기 Morality play에 나오는 Vice와 Interlude에 나타나는 Riot등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Henry IV—Part II에서는 作家는 Part I에서 보다 Falstaff가 度를 넘어 觀衆들의 빈축을 살 정도로 惡人雜輩들과 수작하게 하고 卑劣인과도 작당하게 되어 募兵官으로서는 도저히 容納할 수 없는 罪행을 저지르며 Bardolph, Pistol, Mistress Quickly, Doll Tearsheet 등과 거래하는 것은 스스로의 品位를 格下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Prince Hal이 登極하였을 때 Falstaff의 마음대로 領相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면 Henry V의 꼴이 어찌되었을까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Hal와 Falstaff의 訣別에는 왕가왕부가 있기 마련이나 Hal의 英斷보다도 Falstaff는 自身의 과실로써 排斥됨을 면치 못하게 된다. 作家도 그 時代 人們의 同情心이나 人間의인 面을 많이 고려하여 Falstaff는 불가피하게 Hal

에게 疏遠당하나 一面 뒤 맛이 개운치 못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한편 罪意識 속에서 우울한 나날과 不寐症에 사잡로했던 Henry IV가 生前에 걱정하던 것을 씻고 그가 바랐던 聖地巡禮도 성취하지 못하였어도 Jerusalem-Chamber에서 홀가분하게 눈감은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9) *Henry V*

Shakespeare는 이 史劇을 執筆할 때 中間에 *The Merry Wives of Windsor*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史劇의 主人公은 悲劇적이었는데 Henry V는 그렇지 않다. 筆法에 있어서도 Henry V의 活動狀況—주로 佛國 侵攻의 場面을 무대에다 상연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각 막마다 Prologue를 붙이어 一種의Epic Drama인 이상을 주고 있다. 일찍이 *Romeo and Juliet*에 있어서도 Verona의 市街全景을 London의 一角으로 表現할 수 있었고 나중에 *King Lear*에서도 황야의 場면을 무대에서 연출시키고 있다.

作家的 마음은 史劇의 두번째 tetralogy를 速히 마치고 다음으로 그가 企圖하고 있는 Julius Caesar와 Hamlet등의 悲劇의 主人公에 集中되었을지도 모른다. 作家는 騷然한 軍事 行動보다는 理想의인 王으로 Henry V를 崇仰받는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그가 염두에 두었던 理想인 王의 임무나 적절한 戰爭行動을 나타내고 있다. Henry V는 전쟁같은 一大舉事에는 獨斷 恣行함이 없이 Archbishop of Canterbury와 Sir Thomas Sloyt같은 高位 人士와의 諮品을 받드시 격고 나서 行動에 옮기고 또한 경건한 信仰心이 있어 “Take it, God, For it is more but thine [IV, VIII, 108-109]이라고 Agincourt에서 대승한 다음 말하고 大事를 치르기 前에는 받드시 기도하고 모든 일의 神意, 天命에 依해서 이루어 지는 것을 알고 있는 데 反하여, Dauphin 같은 사람이 自己過信과 Henry V와 英國軍을 蔑視하는 態度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Structure로 볼 때 Henry V가 Henry IV 두 편보다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은 tragic element가 결여된 때문이다.

Pistol, Nym, Bardolph와 같은 Falstaff의 殘黨들이 잠시 등장하나 그들이 이미 Henry V 治下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어이없이 사라진다.

Cambridge, Scroop, Grey 같은 반역도들도 준엄하게 처단된다. 그대신 Fluellen, Jauny, McMorries等 各地方을 代表하는 將軍들이 Henry V에게 忠誠을 다하여 佛國을 侵攻하는 데 성공한 것은 그가 得人을 잘하였고 영국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나타낸 때문이다.

어렸을 때 경험한 人生의 모든 치부는 그로 하여금 登位한 後에 明察한 판단력에 많이 창조하여 賢君이 된 것이다.

(10) *Henry VIII*

이 史劇은 Shakespeare의 sole authorship보다는 John Fletcher와 合作한 것이라는 說이 있고 또는 Prologue와 Epilogue만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說도 있는데 다른 作家와 合作하였다는 것이 支配的이다.

이 作品은 또한 作家의 마지막 作品인데 이때는 이미 觀衆들의 史劇에 對한 관심과 흥미는 많이 사라진 後이다.

Henry VIII는 오만하고 利己的인 君主로 特히 女宮이 매우 山란하여 Katherine, Anne Boleyn, Jane Seymour등을 위시하여 6차에 걸친 결혼과 Katherine과의 이혼을 둘러싼 Rome과의 絶別 백정의 아들로 日국의 政事와 宗教까지 휩쓸었고 그의 敵手였던 The Duke of Buckingham은 그의 手中에서 여지없이 제거된다. 作家도 Wolsey와 Katherine에서 筆致를 集中한 點으로 보아 이들이 Henry VIII의 主人公이라고 할 수 있다. Katherine는 Henry VIII 보다 6세나 年上이어 본시 형수였던 사람과 무리하게 結婚하게 된다. Katherine는 왕후로써만이 아니라 賢母良妻의 代表的인 女人이었는데도 Anne Boleyn과 再婚키 위해서 Katherine를 王未亡人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칭호를 내린다. Henry VIII의 업적이라면 별것도 없고 後宮을 모아 들이는 데 집중하였다. Charles Dickens가 그를 評하여 "a most intolerable ruffian, a disgrace to human nature"라고 까지 혹평하는 대는 충분한 理由가 있었을 것이나 作家는 그의 좋은 절과 업적만을 들어 묘사하고 있다. 굳이 그의 업적을 든다면 Anne Boleyn사이에 1533년에 出生한 Elizabeth I라는 公主를 낳은 것이다.

英國은 이 시기에 Rome과는 분리되었고 Norman Conquest와 Industrial Revolution사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의 在位中에는 Buckingham, Wolsy, Katherine등이 몰락하였고 Anne, Boleyn, Cranmer와 Thomas Cromwell등이 등용된다.

結 語

以上 대략 Shakespeare의 史劇 10篇에 對한 短評을 마치고 보니 아직도 不足한 點을 많이 느끼게 된다.

大學院 教育課程에서는 各自가 스스로 研究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으나 指導方法 같은 것을 말한 다면 每週 3시간 정도 配定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史劇 10篇을 마칠 수 있으면 理想的이 겠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履修科目과의 balance도 있고 해서 힘이 들고 時間 案配도 어려울 것이다. 좀 easy-going으로 나간다면 우선 두개의 Tetralogy中에서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 한 學期中에 마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앞서 提起한 Prerequisites로 내놓은 참고서적을 읽고 시작하기는 그리 쉽지 못하다. 다만 King John과 Henry VIII는 Tetralogy와는 別도인 것이므로 放學이나 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史劇을 研究하는 데 있어 量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大學院 在學中에 教材로서 또는 그밖에 개별적

으로라도 좋으니 完讀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밖에도 Folger's Shakespeare Library에서 1950年 以來 季刊으로 發刊하는 Shakespeare Quarterly같은 잡지를 꾸준히 구독해서 읽을 수 있다면 美國內의 Shakespeare研究와 무대 상연등은 물론이고 世界 各國의 저명한 學者들의 次元 높은 論文과 대할 수 있게 되어 自身을 채찍질하는 데 큰 活力素가 될 것이다.

끝으로 참고서는 各篇마다 기록하는 것이 원칙일지 모르나 筆者가 지금까지 읽은 책 수가 제한되어 있어 중복될 것을 염려하여 末尾에다 일괄 수록하니 理解있기 바란다.

Bibliography

1. Asimov, Isaac. *Asimov's Guide to Shakespeare*, Avenel Books, New York.
2. Becker, George J. *Shakespeare's Histories*: Frederick Ungur Publishing Co., New York.
3. Berman, Ronald. ed. *Henry V*: Prentice-Hall, Inc., New Jersey.
4. Bluestone, Max & Norman Robkin. ed. *Shakespeare's Contemporaries*, Prentice-Hall, Inc., New Jersey.
5. Boris, Eona Zwick. *Shakespeare's English Kings, the People, and the Law*, Fairleigh Dickenson Univ. Press, Rutherford, Madison Teaneck.
6. Bromley, John C. *The Shakespearean Kings*, Colorado Associated Univ. Press.
7. Brook, G.L. *The Language of Shakespeare*, Andre Deutch.
8. Campbell, Lily B. *Shakespeare's Histories*: Th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lif.
9. Campbell & Quinn. *The Reader's Encyclopedia of Shakespeare*: Thomas Y. Crowell Co., New York.
10. Chambers, E.K. *Shakespeare A Survey*, Hill & Wang, New York.
11. Chute, Marchetle & Ernestine Perrie. *The Worlds of Shakespeare*, E.P. Dutton & Co., Inc., New York.
12. Dean, Leonard F.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Oxford Univ. Press, London, Oxford, New York.
13. Doren, Mark Van. *Shakespeare*: Henry Holt and Co., New York.
14. Hosley, Richard. *Shakespeare's Holinshed*: Capricorn Books, New York.
15. Johnson, Samuel. *On Shakespeare*: Hill and Wang, New York.
16. Kermode, Frank. "What is Shakespeare's Henry VIII about?" Durban Univ. Journal.
17. Knight, L.C. *Shakespeare: The Historie's*, The British Council. By Longman Group Ltd.
18. Mehus, Donald V. *Shakespeare's English History Plays*: Folger Shakespeare Library, Charlottesville.

19. Morgann, Manrice. "*Shakespeare and Falstaff* (from *An Essay on the Dramatic Characters of Falstaff*, 1777), Oxford Univ. Press.
20. Owen, Lewis J. et al. *Lectures on Four of Shakespeare's History Plays*,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Pittsburgh.
21. Reese, M.M. *The Cease of Majesty*, Edward Arnold Ltd., London.
22. Rossiter, A.P. "*Richard II: Angel with Horns*," London.
23. Sacco, Peter. *Shakespeare's English Kings*, Oxford Univ. Press, London, Oxford, New York.
24. Tillyard, E.M.W. *Shakespeare's History Plays*: Penguin Books. Tillyard, E.M.W. *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London.
25. Traversi, D.A. '*Richard II*' *Stradtford Papers on Shakespeare*, ed. B.W. Sackson, Toronto.
26. Trevelyan, G.M. *History of England*, Longmans' Green And Co., London, New York, Toronto.
27. Wain, John. *The Living World of Shakespeare*, MacMillan, London, Melbourne, Toronto.
28. Waith, Eugene M. *Shakespeare the Histories*, Prentice-Hall Inc., New Jersey.
29. Watt, Homer A. et al. *Outlives of Shakespeare's Plays*: Barnes & Noble, Inc., New York.
30. Wilson, F.P. *Marlowe and the early Shakespea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Excerpt.

For the last two and half decades my experience in the classroom made me feel something incomplete and missing because it was not easy for me to illu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history and tragedy, tragedy and comedy. History had some similarities with tragedy, comedy, pastrol, and chronicle plays. However, it is advisable to form a distinctive definition as to each play wishing to pursue.

This essay is designed to explore some distinguishable patterns of scholars in order to build one's own. I noticed without having a specific knowledge of its foundation along with survey of English history it is almost impossible for Korean students who show a lack of intelligence in the field.

Prior to approaching to Shakespeare history it is required to learn about some bibliog-

raphies assuredly used by the author as well as his sources. Author's dramatic adaptations on historical facts can easily be summarized. Finally, I added a brief introductory comment to each play merely to serve an incentive for further study on his planning and structure of each play.

There may be no royal road in pursuing Shakespeare's history plays, so I followed E.M. W. Tillyard's pattern. As everyone well knows, there are two tetralogies and two separate plays—King John and King Henry VIII.

Ideally speaking, entire ten history plays must be completed during the course of a single semester, if not, one tetralogy at least in one semester. It is almost imperative to finish up all ten plays during campus period and only then one can build a positive definition of each play studied.